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배정이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Bae, Jeongy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of familial factors (parental acceptance, autonomy, and family satisfaction), social support (teacher's support and friend's support), school achievement,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preceding research, this study established a path model of school adjust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Methods:** Two thousand six hundred and twenty nine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a visit-survey with an organized questionnaire and was analyzed by the SPSS and AMOS programs. **Results:** Self-concept showed a significantly direct influence to school adjustment while both family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Parental acceptance, autonomy, and social support in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Conclusion:** These results imply that first, family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are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s of school adjustment. Especially friend's support, teacher's support and school achievement should help improve the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Second, a variety of programs are available for schools to employ in an effort to provide interventions for students who demonstrate school maladjustment. Finally, it is necessary for family, school and society members to comprehensively cooperate to improve school adjustment.

Key words: Adolescent, Adjustment, Self concept, Social support, Famil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사춘기가 시작되어, 인생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적응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중학생들은 많은 보호와 관심을 받아왔던 초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학업의 성취뿐 아니라 자아를 확인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며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양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Bae, Bae, & Cheon, 2006).

중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요 생활 영역으로 사회적, 지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2의 성격 형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지적인 기능의 발달이나 지식 습득뿐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형성에 그 목적을 둔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교사와 친구를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고 경험한다(Kim, Chung, & Yoo, 2007). 그리하여 일찍이 발달심리학자들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발달과제들 중 하나로 보고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을 학교라고 강조한 바 있고(Yoon & Kim, 2005), 중학생 시기의 학교적응은 향후 청소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요어 : 중학생, 청소년, 학교적응,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e, Jeongye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um-dong, 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3 Fax: 82-51-896-9840 E-mail: jibai@inje.ac.kr

투고일 : 2008년 3월 31일 심사위원회일 : 2008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 2008년 5월 26일

낼 수 있느냐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학교적응이 강조되고 있다(Bae et al., 2006)

학교적응이란 학습자가 교육적 상황에서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학교생활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Bae et al., 2006). 즉, 학교적응은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칙과 질서 등에서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의 규준과 질서를 잘 준수하고 학업성적이 향상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환경은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처벌위주의 생활지도 등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 주고, 더구나 학교폭력과 왕따는 학교 적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우려할만한 수준이다(Kim et al., 2007; Lee & Shin, 2006). 교육인적자원부(2004)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도중탈락률은 2000년도에는 26,293명(1.8%), 2003년도 21,227명(1.5%), 2004년도 13,752명(0.8%)으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학교부적응의 경우는 38.7%, 38.9%, 47.6%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어 적대감과 실패감이 누적되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폭력 등의 비행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이외에도 사회적 고립, 우울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유발시키며 심한 경우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Moon, 1987).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보호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인으로 학교적응을 강조하는데, 특히 중학생은 아직까지 적응능력이 미숙하여 학교생활에서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쉽게 좌절에 빠져 방향을 하게 되어, 이 시기의 학교적응문제는 부모와 교사들의 큰 관심사이다(Park & Moon, 2006).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예측변수는 자아개념(Park & Moon, 2006), 자아탄력성(Lee & Shin, 2006), 임파워먼트(Kim Chung, & Yoo, 2007) 등의 개인요인, 교사의 애착(Baek, 2007), 학업동기(Kweon, 2006) 등의 학교요인,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Lee & Shin, 2006; Moon & Kim, 2002), 가족의 건강성(Lim & Lee, 2006; Park & Hwang, 2007) 등 가족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청소년의 적응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가

족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족의 특성을 배제한 채 청소년의 문제와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고 본다(Park & Hwang, 2007). 가족의 특성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들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며(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Jo & Lee, 2007).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가정요인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일치하지만 이들 중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큰지 또 각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는 매우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Park & Moon, 2006). 또한 연구 대상자 선정에서도 한 부모 자녀, 빈곤청소년 등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교하는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정신병리와 더불어 학교적응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Kim, Chung, & Yoo, 2007).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학교적응은 문제를 가진 학생들로 국한하기보다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적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환경들이 상호유기적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전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즉, 개인과 가정 및 학교라는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로서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인, 학교 및 가족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개인요인으로 자신이 지각하는 학업능력과 자아개념을 설정하고 가족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수용성, 자율성)와 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그리고 학교요인으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를 설정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각 변수들 간의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고 나아가 중학생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에 진입한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첫째, 문헌고찰을 근거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려진 중학생들의 학교적응 관련변수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가설적 학교적응경로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보다 적합도 높은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도출하고, 학생들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부합도와 가설경로들을 검정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수용성/자율성)

Kim (1984)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도구 중 성취(성취-압력)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알고자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성(수용-거부 영역) 6문항과 자율성(자율-통제 영역)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자율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수용성 .80, 자율성 .77이었다.

2) 가정에 대한 만족도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Kwak (1995)의 한국형 청소년용 삶의 만족도 검사(Korean Life Satisfaction Scale for Adolescence, KLSSA) 도구 중 가정만족도 1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0이었다.

3) 학교 적응

Sim과 Kim (1998)이 개발한 청소년 행동특성 설문지(K-TAI)중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 공부적응의 내용으로 구

성된 학교적응도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의 자가보고형 설문지로서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이었다.

4) 학업능력 지각

본인의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은 Harter (1982)의 Perceived Competence Scale (PCS)를 Lee (1994)가 번역하여 표준화한 학업능력지각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6문항의 자가보고형 설문지로서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능력이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6이었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Vaux 등(1986)이 개발한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S-A) 척도를 Han (1996)이 번역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구의 지지(8문항)와 교사의 지지(8문항)로 구성되어있는 자가보고형 설문지로서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도구의 신뢰도는 친구의 지지는 Cronbach α =.88, 교사의 지지는 .77이었다.

6) 자아개념

Park과 Oh (1992)가 개발한 청소년 자아개념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자아개념으로 자아수용, 자아존중 및 자아신뢰를 묻는 각각의 16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자가보고형 설문지로서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8이었다.

3. 연구 대상,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629명이다.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학교적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중산층 지역으로 예상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의 1개 중학교, 일반 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지역의 1개 중학교 및 저소득층 지역으로 예상되는 고지대 주택밀집지역에 소재하는 1개 중학교를 임의 표출하였다.

타당도 높은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나누어주어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았으며,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 참여 시 이익과 발생 가능한 정신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배부된 총 설문지는 3,000 부였으나 이중 2,862부가 회수되어 95.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2,629개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 WIN 14.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 검정은 t-test와 ANOVA 검정으로, 모형의 적합도, 경로계수 추정치와 효과분석은 AMO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카이자승치(chi-square) 검정 및 적합도 지수들, 즉 카이자승치/자유도(χ^2/df),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GFI) 및 간명표준적합지수(Parsimonious Normed of Fit Index, PNFI) 등을 산출하였다.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대상자들은 학년별로는 서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1,196명(45.5%), 여학생이 1,433명(54.5%)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학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는 대졸이 1,451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1,467명(5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이 인지한 자신의 가정 경제 상태는 '보통 정도'라고 대답한 경우가 1,838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393명(15%)은 '아주 못살거나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흡연 실태조사에서는 2,160명(82.2%)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지만 86명(3.3%)은 '지금도 피우고 있다'고 응답

하였고, 음주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1,383명(52.7%)이 음주 경험이 있고, 351명(13.4%)은 현재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치료제 이외의 약물사용 경험은 27명(1%)이 사용한 경험이 있고 9명의 학생들은 현재도 사용한다고 답하여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중 학생들의 절반인 1,349명(51.3%)은 가출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있고, 187명(7.1%)은 실제로 가출한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 중 178명(6.7%)은 1번 이상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고, 369명(14%)은 폭력 행동이나 패싸움을 한 적이 있으며, 182명(6.9%)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885명(33.7%)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61명(2.3%)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Table 1).

2.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도의 차이 검정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약물사용 경험을 제외한 학년, 성별, 종교,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상태, 학업성적, 가출, 무단결석, 패싸움 등 폭력 경험,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성경험, 자살시도 경험 등 14가지 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3. 중학생의 학교적응도 및 관련요인들의 상관관계

가설 모형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중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는 최소치 10점, 최대치 40점 중 26.82 ± 3.41 점으로 척도의 중간값인 25점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었다.

학교적응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Pearson's correlation)을 한 결과, 학교적응도는 부모의 수용성($r=.364$, $p<.0001$), 부모의 자율성($r=.150$, $p<.0001$), 가정에 대한 만족도($r=.422$, $p<.0001$), 친구의 지지($r=.357$, $p<.0001$), 교사의 지지($r=.392$, $p<.0001$) 학업능력지각($r=.229$, $p<.0001$) 및 자아개념($r=.567$, $p<.0001$) 등 모든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아울러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친구 및 교사의 높은 지지는 긍정적인 학업능력지각과 자아개념으로 학교적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영향의 경로가 어떠한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Table 1. Degree of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N=2,629)

Characteristics		n (%)	Mean	SD	t or F	p
Grade	1st grade	852 (32.4)	27.95	3.51	18.73	<.0001
	2nd grade	828 (31.5)	26.84	3.59		
	3rd grade	949 (36.1)	26.83	3.25		
Sex	Male	1,196 (45.5)	27.00	3.43	2.49	.013
	Female	1,433 (54.5)	26.67	3.39		
Religion	Christian	577 (21.9)	26.73	3.60	3.69	.011
	Catholic	154 (5.9)	27.47	3.35		
	Buddhism	855 (32.5)	26.99	3.34		
	None	1,043 (39.7)	26.64	3.36		
Father'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84 (3.2)	26.17	4.01	23.75	<.0001
	High school	1,094 (41.6)	26.33	3.28		
	Above college	1,451 (55.2)	27.23	3.42		
Mother'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108 (4.1)	25.86	3.58	21.90	<.0001
	High school	1,467 (55.8)	26.53	3.29		
	Above college	1,038 (39.5)	27.34	3.49		
	No response	16 (0.6)				
Economic status	Very poor	44 (1.7)	24.70	4.04	28.19	<.0001
	Rather poor	348 (13.2)	25.80	3.39		
	Average	1,838 (69.9)	26.79	3.31		
	Rather affluent	364 (13.8)	28.17	3.34		
	Very affluent	29 (1.1)	28.00	4.25		
	No response	6 (0.2)				
Academic performance (rank/class)	Within 5	384 (14.6)	28.73	3.12	103.37	<.0001
	6-10	428 (16.3)	27.99	3.06		
	11-20	813 (30.9)	26.99	3.10		
	21-30	676 (25.7)	25.63	3.27		
	Above 31	300 (11.4)	24.81	3.37		
	No response	28 (1.1)				
Smoking experience	None	2,160 (82.2)	27.11	3.35	32.65	<.0001
	Occasionally	293 (11.1)	25.61	3.42		
	Gave up smoking	69 (2.6)	25.15	3.28		
	Always	86 (3.3)	24.95	3.27		
	No response	21 (0.8)				
Drinking experience	None	1,222 (46.5)	27.38	3.34	30.54	<.0001
	Occasionally	988 (37.6)	26.63	3.39		
	Gave up drinking	44 (1.7)	25.61	3.36		
	Always	351 (13.4)	25.56	3.37		
	No response	24 (0.9)				
Experience of drugs use	None	2,572 (97.8)	26.83	3.41	2.58	.052
	Occasionally	16 (0.6)	26.18	3.27		
	Stopped now	2 (0.1)	26.50	2.12		
	Abused now	9 (0.3)	23.77	4.08		
	No response	30 (1.1)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time)	None	1,053 (40.1)	27.93	3.18	68.32	<.0001
	Thought seriously	1,349 (51.3)	26.13	3.31		
	Once	121 (4.6)	26.03	3.84		
	Above twice	66 (2.5)	25.09	3.23		
	No response	40 (1.5)				
Experience of absence without leave (time)	None	2,428 (92.4)	27.93	3.18	68.32	<.0001
	1-2 times	131 (5.0)	26.13	3.31		
	3-4 times	17 (0.6)	26.03	3.84		
	Above 5 times	30 (1.1)	25.09	3.23		
	No response	23 (0.9)				

Table 1. (Continued)

(N=2,629)

Characteristics		n (%)	Mean	SD	t or F	p
Experience of fighting (time)	None	2,217 (84.3)	26.99	3.34	14.91	<.0001
	1-2 times	265 (10.1)	26.41	3.47		
	3-4 times	45 (1.7)	24.48	3.88		
	Above 5 times	59 (2.2)	25.16	4.22		
	No response	43 (1.6)				
Experience of sexual relation (time)	None	2,427 (92.3)	26.83	3.39	3.64	.012
	1-2 times	109 (4.1)	27.25	3.25		
	3-4 times	25 (1.0)	26.80	4.03		
	Above 5 times	48 (1.8)	25.33	4.34		
	No response	20 (.8)				
Experience of suicidal attempt	None	1,638 (62.3)	27.56	3.15	117.26	<.0001
	Thought seriously	885 (33.7)	25.72	3.42		
	Attempted	61 (2.3)	23.86	3.90		
	No response	45 (1.7)				

Table 2. Correlation among Parental Acceptance, Autonomy, Family Satisfaction, Friend's Support, Teacher's Support, School Achievement, Self 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N=2,629)

Variables	School adjustment r (p)	Parental acceptance r (p)	Autonomy r (p)	Family satisfaction r (p)	Friend's support r (p)	Teacher's support r (p)	School achievement r (p)
Parental acceptance	.364 (<.0001)						
Autonomy	.150 (<.0001)	.218 (<.0001)					
Family satisfaction	.422 (<.0001)	.675 (<.0001)	.280 (<.0001)				
Friend's support	.357 (<.0001)	.323 (<.0001)	.155 (<.0001)	.307 (<.0001)			
Teacher's support	.392 (<.0001)	.239 (<.0001)	.002 (.926)	.265 (<.0001)	.229 (<.0001)		
School achievement	.229 (<.0001)	.119 (<.0001)	.035 (.069)	.107 (<.0001)	.115 (<.0001)	.086 (<.0001)	
Self-concept	.567 (<.0001)	.463 (<.0001)	.214 (<.0001)	.534 (<.0001)	.435 (<.0001)	.297 (<.0001)	.256 (<.0001)

4.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개념,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간에는 구조적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한 후 Figure 1과 같이 가설적 경로 구성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중학생의 학교적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변수(부모의 수용성, 통제성,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와 매개변수(가정에 대한 만족도, 학업능력지각, 자아개념) 그리고 결과변수(학교적응)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부모의 수용성, 통제성)가 선행변수로서 가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와 더불어 친구 및 교사의 지지를 통하여 학업에 대한 능력과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여 학교적응을 돕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이 실제자료와 잘 맞는지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카이자승치(χ^2), 기초적합지수(G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를 구하였다. 증분적합지수로는 수정적합지수(AGFI)와 표준적합지수(NFI)를, 간명적합지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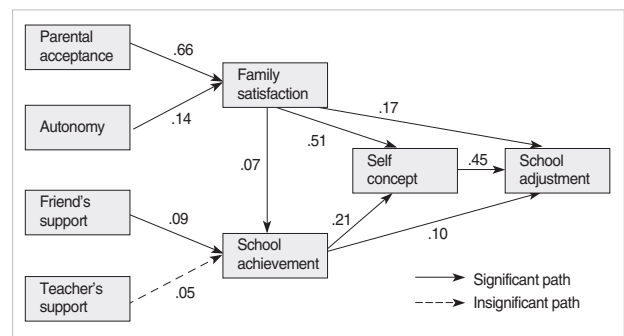


Figure 1. Testing for hypothetical model.

는 표준카이자승값(χ^2/df), 간명적합지수(PGFI) 및 간명표준적합지수(PNFI)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χ^2 값은 394.00, 자유도는 18, p값은 <.001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어 모형과 실제자료가 잘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 수(N=2,629)가 χ^2 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Carmines와 McIver (1981)는 χ^2/df 값이 2-3 이하이면 부합하는 모형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가

설적 모형에서는 이 값이 21.9로 나타나 부합도가 낮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 부합지수에서 기초적합지수(GFI)는 0.92로 나타나 실제자료와 부합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 RMSEA (.09), 표준적합지수 NFI (.80), 간명표준적합지수 PNFI (.57), 간명적합지수 PGFI (.53) 등의 평가지표로는 낮은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합도 평가결과 본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Table 3).

2) 가설적 모형의 유효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내생 변수별로 경로 추정치를 살펴보면, 먼저 학교 적응도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가족에 대한 높은 만족도($\beta=.17$, C.R.=9.14), 긍정적인 자아개념($\beta=.45$, C.R.=23.32) 및 학업능력지각($\beta=.10$, C.R.=5.85)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가정에 대한 만족도($\beta=.51$, C.R.=31.24)와 학업능력지각($\beta=.21$, C.R.=12.50)이었다. 가정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부모의 수용성($\beta=.66$, C.R.=45.56)과 부모의 자율성($\beta=.14$, C.R.=9.84)이었으며, 학업능력지각에 대하여 가정에 대한 만족도($\beta=.07$, C.R.=3.50)와 친구의 지지($\beta=.09$, C.R.=4.46)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교사의 지지($\beta=.05$, C.R.=2.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3) 수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이 제시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에 근거하여 이론적 관계

Table 3. Model Fitness Index for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N=2,629)

Content	Value of hypothetical model	Value of modified model	Evaluation criteria
χ^2	394.00	54.9	
df	18	14	
p	.00	.00	>.05
χ^2/df	21.9	3.92	<3
Goodness of Fit Index (GFI)	.92	.97	$\geq .90$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83	.91	$\geq .90$
Normed Fit Index (NFI)	.80	.89	$\geq .90$
Parsimonious Normed of Fit Index (PNFI)	.57	.59	$\geq .06$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GFI)	.53	.55	Large value is better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	.09	.05	$\leq .05$

가 유추되는 경로를 수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교사의 지지가 학업능력지각에 미치는 경로를 제거하고, 친구 및 교사의 지지가 자아개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또한 수정지수가 큰 가정의 수용성과 자율성,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 간의 오차변량을 자유특정수로 변경하였다.

수정모형의 부합도를 살펴보면, 카이자승치(χ^2)는 54.9, 자유도는 14, p값은 <.0001로 나타났고, 카이자승치/자유도(χ^2/df)는 3.92로 감소하여 부합도가 좋아졌다. 기초적합지수(GFI)는 .97로 높아졌고, 수정적합지수(AGFI) 역시 .91로 상승하였고, 표준적합지수(NFI)는 .89로 상승하여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는 .05로 감소되었고 간명적합지수(PGFI)는 .59, 간명표준적합지수(PNFI)도 .55로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Table 3).

4) 수정 모형의 유효성 검증

수정 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beta=.18$, C.R.=9.85)와 긍정적인 자아개념($\beta=.43$, C.R.=23.54) 및 학업능력지각($\beta=.10$, C.R.=5.85)은 학교적응도를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beta=.66$, C.R.=44.46)이고 자율적($\beta=.14$, C.R.=9.60)일 때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beta=.36$, C.R.=26.81)과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beta=.08$, C.R.=4.12)을 유도하여 간접적인 영향으로 학교적응을 도와준다. 친구의 지지는 자아개념($\beta=.27$, C.R.=17.13)과 학업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beta=.09$, C.R.=4.67)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능력($\beta=.18$, C.R.=11.42)은 자아개념을 통한 간접효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지지($\beta=.12$, C.R.=7.42)는 자아개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적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수정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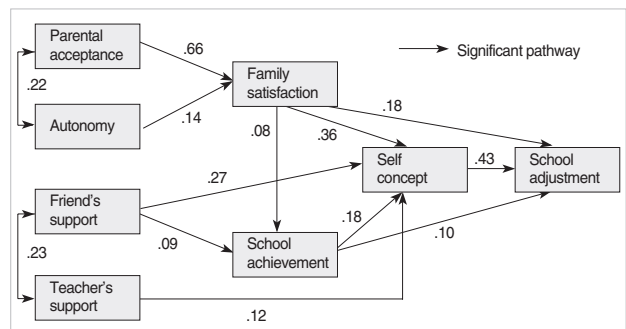


Figure 2. Testing for modified model.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효과를 살펴 보면, 가정에 대한 만족도, 자아개념, 학업능력 지각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총 효과를 보인 경로는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친 영향이다.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과히 크지 않았으나, 자아개념과 학업능력 지각을 통한 간접효과가 커서 총 효과가 매우 높아졌다. 한편, 학교적응도에 가장 큰 간접효과를 보인 변수는 부모의 수용성이었다. 이들 변수는 학교적응도를 35.9% 설명하였다. 자아개념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만족도, 친구의 지지,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 및 교사의 지지 순서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의 수용성은 학업능력지각을 거친 간접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자아개념에 미치는 총 효과는 가정에 대한 만족도, 친구의 지지, 부모의 수용성,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4%였다. 학업능력 지각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친구의 지지와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의 수용성과 자율성으로 인한 간접효과도 매우 미미하여, 이들 변수들에 의한 학업능력 지각의 설명력은 1.5%에 그쳤다.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수용성이 매우 큰 직접효과를 보였고, 자율성도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여 이들 두 변수만으로도 47.4%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4).

요약하면, 모형의 경로추정치를 통하여 개념 간 측정변수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가정에 대한 만족도, 자아개

념 및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은 중학생들의 학교적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수용성과 자율성), 친구 및 교사의 지지는 변수 간 경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정하고 모형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이 학교적응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친구 및 교사의 지지,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 자아개념 등 정신 심리적 요인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학교적응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요인으로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개념 및 학업능력지각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 및 교사의 지지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먼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이는 자아개념과 학업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으로 학교적응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학교적응도에 직접효과뿐 아니라 매우 큰 간접효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적응도에 중요한 변수인 자아개념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이나 부적응 관련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변수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 관련 요인이다(Baek, 2007).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보호 등의 가족 하위요인은 학업동기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oon & Kim, 2002)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청소년들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Park과 Moon (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억압적인 양육과 통제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학교적응을 저해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Kim, Chung, & Yoo (2007)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 및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선행 연구들(Moon & Kim, 2002; Park & Hwang, 2007; Ryan, Still, & Lynch, 1994)에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더불어 자녀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Jo & Lee, 2007)는 학교적응에 큰 영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 ²
Family satisfaction	Parental acceptance	.66		.66	.474
	Autonomy	.14		.14	
School achievement	Friend's support	.09		.09	.015
	Family satisfaction	.08		.08	
	Parental acceptance		.05	.05	
	Autonomy		.01	.01	
Self-concept	Family satisfaction	.43	.02	.44	.344
	Friend's support	.27	.02	.30	
	Teacher's support	.12		.12	
	School achievement	.18		.18	
	Parental acceptance		.28	.28	
	Autonomy		.06	.06	
School adjustment	Family satisfaction	.18	.20	.38	.359
	Self concept	.43		.43	
	School achievement	.10	.08	.18	
	Parental acceptance		.24	.24	
	Autonomy		.05	.05	
	Friend's support		.14	.14	
	Teacher's support		.05	.05	

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들이 학교적응을 통하여 올바른 성인기로의 발달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수용적인 태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며 행동의 결과를 성취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적응력을 높여줌에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학생 당사자에게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 중재와 더불어 특히 학생들이 부모와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기에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건강보호행위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가족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자아개념을 제고시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보건교육도 필요하다.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도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Yoon과 Kim (2005)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저하되고 교사와 교우관계에서도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껴 결국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Moon (1987)의 연구에서도 부적응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을 조사한 Jo와 Lee (2007)의 연구에서도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한편, 지나치게 학업성적 위주의 학교생활 지도는 지양하는 교육풍토조성도 시급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아개념은 학교적응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이는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Kweon (2006)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는데,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개념을 강조하였다. Park과 Moon (2006)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밝힌 바 있고, Koo, Park, & Jang (2006)은 자존감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an과 Kim (2006)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자아개념과 학교적응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보건이나 지역사회정신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적인 훈련과 상담이 필요하리라 본다.

친구의 지지는 자아개념과 학업능력지각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도를 높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청소년기에 친구는 정서적 공감자이며 지지자로서 친구집단을 통하여 안정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Kwak, 2007). Chung과 Kim (2000)은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청소년들은 따돌림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호소하였다. Kim과 Kim (200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교우관계는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학교적응을 도와준다고 밝혀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경로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나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왕따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사의 지지도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학생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 (2000)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교사와의 관계는 중학생의 학교적응도를 예언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고, Kwak (2007)도 중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은 교사로서,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Moon과 Kim (2002)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관련 변인을 조사하였는데,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동기가 높아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에 많은 선행 연구들(Lee & Shin, 2006; Park & Moon, 2006)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되어,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더불어 교사가 적절한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들이 학교에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전념하느냐는 교사와의 애착형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학교생활에 전념하게 되고 애착이 약할수록 학교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Lee & Shin, 2006).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과목에 대한 지식전달이나 단순한 생활지도를 통한 피상적인 관계형성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자각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며, 학교 당국은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장에는 단순히 개

인적인 의미 이상의 가정, 친구, 교사 등 사회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므로,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나아가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사, 학교당국 및 정부 교육 관련부서가 총체적인 접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지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밝혀진 학교적응 관련요인들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각 대상자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재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에서 관련 변수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 및 교사의 지지는 간호중재가 가능한 변수로써, 건강관리체제로부터의 지지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은 학교부적응의 예방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는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설명하고 부적응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간호중재법의 개발에 지침이 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로써 가정에 대한 만족도, 학업능력지각 및 자아개념을 주요개념으로 다루었다.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요인 및 학교요인으로 나누고,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자아개념과 학업능력지각을, 가족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학교요인으로는 친구의 지지 및 교사의 지지를 포함시켜서 이 개념들과 학교적응과의 상호 작용을 토대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여 현실과 보다 잘 부합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이론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여, 보다 설명력 높고 높은 부합도를 보이는 학교적응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적응 모형은 8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설적 모형의 검증결과 일부 부합지수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은 실제 자료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모형은 가설적 모형에 비하여 더욱 간명하고 부합도도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수정모형에서는 모든 부합지수가 이상적인 수치($\chi^2=54.9$, $p=.00$, $GFI=.97$, $AGFI=.91$, $NFI=.89$, $RMSE=.05$)로 나타나, 실제자료와 아주 잘 맞는 이상적인 모형임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학교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중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 학업능력지각, 자아개념

및 친구와 교사의 지지는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중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친구나 교사의 지지가 낮은 경우 부정적인 학업능력지각과 자아개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변수들이 매개되어 학교적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정서, 심리,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총체적인 접근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로모형은 보건교사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간호사 등 청소년 건강관련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건강전문가들이 학교부적응의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발견, 예방 및 중재하는데 지침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더불어 학생 개인이나 가족상담의 필요성 및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적응에 있어서 고위험군으로 여학생, 부모님의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학업 성적이 저조한 학생, 현재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 가출, 무단결석, 폭력 행동, 성경험 및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적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하여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중재 활동을 제언한다.

둘째,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학업능력지각, 친구 및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위치한 3개교에서 남녀 2,629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보다 예측력이 높은 모형 구축을 위하여 추후연구로서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적응과 관련된 보다 많은 변수들을 발굴하고 포함시켜 모형을 확대 개발하는 것도 요망된다.

REFERENCES

- Bae, J. A., Bae, J. W., & Cheon, S. M. (2006).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program for middle school freshmen's school life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9, 53-68.
- Back, H. J. (2007).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9, 357-373.
- Carmines, E., & McIver, J. (1981). *Analyzing models with unobserved*

- models: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Beverly Hills, CA: Sage.
- Chung, H. K., & Kim, K. H. (2000).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 With the subject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137-147.
- Gu, J. E.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adjustment in family life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Han, M. H.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n, S. S., & Kim, K. M. (2006). Influencing factor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37-44.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Jo, E. J., & Lee, H. K. (2007). The effects of school maladjustment on risk behavior, family, and school factor by Korean adolescents' panel dat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4), 59-80.
- Kim, G. J. (1984).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H., & Kim, O.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trust perceived by their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 117-129.
- Kim, Y. R., Chung, S. K., & Yoo, S. K. (2007). Effect of empower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163-190.
- Koo, H. Y., Park, H. S., & Jang, E. H.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151-158.
-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4). *2004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education*. Seoul: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Kwak, K. J. (1995).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terms of KLSSA.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 5-16.
- Kwak, S. R. (200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 1-21.
- Kweon, S. Y. (2006).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and related variables. *Middle School Education Research*, 54, 329-349.
- Lee, M. S. (1994).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eer-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of earl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Y. J., & Shin, J. Y. (2006).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school life maladjustment, and parental education attitude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5, 111-126.
- Lim, J. A., & Lee, I. S. (2006). A study on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2), 37-62.
- Moon, E. S., & Kim, C. H.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 219-241.
- Moon, H. O. (1987).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of maladaptation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 Park, J. S., & Moon, J. W. (2006). The caus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s health protec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3, 91-107.
- Park, M. J., & Hwang, K. A. (2007). An impa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0(2), 43-51.
- Park, N. S., & Oh, K. J. (1992). Effects of methylphenidate treatment on cognitive behavioral symptoms and social, academic & emotional adjustment of ADH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 235-248.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im, H. S., & Kim, M. K. (1998).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typ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0, 227-250.
- Vaux, A., Phillips, J., Holly, L., Thomson, B., Williams, D., & Stewart, D. (1986).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S-A) scale: stud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95-219.
- Yoon, E. J., & Kim, H. S.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life-style, mental health and school-related adjustm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7, 105-120.